

보도시점 2024. 5. 9.(목) 16:00 배포 2024. 5. 9.(목) 14:00

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현장단속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

- 김윤상 2차관, 인천공항 세관 해외직구 통관 및 마약탐지견 현장 점검
- 마약전용 검사장 설치, 마약검사 장비 현대화 등 관련 예산 대폭 확대

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월 9일(목)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공항 세관을 방문하여 해외직구물품 통관장*(특송물류센터)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 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하고 마약단속 역량을 점검하였다.

* 우편물·특송 등 해외직구 관련 마약이 전체 마약 적발의 79%를 차지

이날 현장을 둘러본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유지되기 위해 국경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.

현장점검 후 이어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관세청의 마약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. 김 차관은 마약 근절을 위해 마약 검사 및 인프라 조성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, 이를 위해 24년에 인천공항 내 마약전용 검사장 2개소 설치, 각종 마약 검사 장비 추가 도입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*하였다고 밝혔다. 아울러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.

* 관세청 마약 관련 예산 : ('23) 18.4 → ('24) 115.4억원(+527.7%)

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 부처,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	책임자	과 장	이근우 (044-215-7170)
		담당자	사무관	이도희 (raystrin@korea.kr)